



자랑스런 로타리안 시리즈 ④

진실한 봉사는 나에게서 시작된다 **고성대 한국로타리장학문화재단 이사장**
(2012-13 지구총재, 한양RC)

1981년 고성개발을 설립한 고성대 한국로타리장학문화재단 이사장은 국제로타리 창립 100주년을 맞이한 2004~05 한양로타리클럽 회장을 역임했으며, 이후 2012~13 국제로타리 3650지구 총재를 지냈다. 지난 해부터는 한국로타리장학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재임 중이다.



1956년, 19살의 한 청년이 혈혈단신으로 서울행 야간열차에 몸을 실었다. 안락한 부모님의 집을 떠나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낯선 곳으로 떠난 청년은 이 때까지만 해도 반세기 뒤 자신이 세계에서 가장 큰 민간 봉사단체의 일원이자, 주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2019년, 국제로타리의 '아치클럽프 소사이어티(AKS) 멤버'이자 한국로타리장학문화재단을 이끌고 있는 고성대 이사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이사장님께서 로타리안이 되신 계기는 무엇입니까?

1994년, 지금은 작고하신 소장(小崗) 민관식 선생님이 저를 로타리로 이끌었습니다. 그 때까지 저는 로타리가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소장 선생님이 저에게 민간 봉사단체의 필요성을 알려주셨습니다. 봉사활동을 함께하고, 해남 송인상 선생님 등 한양로타리

클럽의 훌륭한 선배님들에게 그 분들의 생각, 사회 봉사의 방향, 자신을 다스리는 자세, 대외적 활동 규범 등 여러가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젠 저에게 큰 행운이었고, 이분들을 통해 저도 사회를 배려하며 살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사장으로 계신 한국로타리장학문화재단에 대해서도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1973년 설립된 한국로타리장학문화재단은 지난 46년 동안 약 5만7,400여 명의 대학생들에게 1,137억 원의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국 19개 지구의 모금을 통해 장학금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용산에 새로운 로타리 회관을 건립하고, 회관의 임대 수입으로 장학금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 유학생을 위

“나에게 로타리는 내 삶의 거울이다”

한 장학 제도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일본 로타리에는 요네야마(米山) 기념장학회가 있습니다. 일본에 다녀온 우리나라 유학생 중 5,000명 이상이 이 요네야마 장학금을 받았습다. 우리도 보다 안정적인 재원을 통해 장학금의 질을 높이고, 우리나라와 로타리의 위상을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이사장님께서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는 무엇이 있습니까?

로타리안이 되어 서울 청운동의 양로원에서 어르신들 목욕 봉사를 했던게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어르신들 목욕 봉사였는데, 이 봉사를 통해 내가 살아왔던 지난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서 버림받거나 헤어져 외국으로 입양을 간 아이들 생각도 납니다. 부모가 출생신고조차 안했기 때문에 그들은 주민등록과 호적 같은 입양 서류에 필요한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와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이들에게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만들어서 외국으로 입양을 보냅니다. 이들 중 성인이 되어 우리나라로 돌아와 부모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서류는 부득이 입양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어서 대부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것이 가장 안타까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치클럽프 소사이어티 멤버이시기도 하며, 지난해에도 1억 원을 한국로타리장학재단에 기부하시는 등 여전히 많은 기부를 하고 계십니다.

기부나 봉사는 숫자로 헤아리는 게 아닌데, 이런 이름은 부끄럽습니다. 지구 총재를 할 당시 로타리 100주년을 맞아 미국 시카고를 방문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했습니다. 25만 달러(당시 환율로 약 3억8,000만 원)를 기부하기로 결심하고, 실행에 옮겼죠. 지난 해 장학재단에 기부한 것 역시 비슷합니다. 내가 가진 것,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일 뿐입니다.

이사장님께서 로타리가 어떤 조직이며, 어떤 곳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로타리안은 스스로 매주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 복지시설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찾아갑니다.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그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로타리안입니다.

저는 로타리안이란 사실만으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더 낮은 자세로, 봉사 자체에서 기쁨을 느끼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봉사는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니고, 내가 봉사한다고 떠들며 하는 것도 아니라 조용히, 남 몰래 하는 것이라는 점을 모두가 함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진실되고, 자신의 자발적인 의지로 생활하며, 자기 반성을 철저하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부모 공경은 누구나 당연히 생각하는 것이지만,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

봉사나 기부를 하는 것보다

자신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모시는 게 먼저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으면,

사회에서도 다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